

## 이상인 부위원장, 태국 방통위원장과 면담

-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9월 8일(금), 과천청사에서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이하 NBTC, Office of the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사라나 분바이차이야프룩 위원장 등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은 태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 정책 등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NBTC는 2011년 설립되어 태국의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 수립, 주파수 관리 및 인허가,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사업자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상임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지피티(Chat GPT)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통신 이용환경의 편리함은 배가되었으나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온라인 유해 정보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권익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라나 분바이차이야프룩 위원장은 태국 NBTC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양 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두 기관 간에 정책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과	책임자	과 장	김영주 (02-2110-1331)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 (02-2110-1358)

